

부록

김삼기,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
(민속원, 2006)

김인규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2008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1 No. 2

김삼기,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 (민속원, 2006)

김인규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이 책의 저자는 평자와 같은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해 온 관계로 평소 친분이 두텁다. 그런 탓에 평자는 저자에게 책을 직접 선물로 받았다. 평자는 책을 받자마자 읽었고 읽은 후에는 몇 번이고 서평(書評)에 대한 망설임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디에서고 이 책에 대하여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듯 하여 평자라도 이 책에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사실 평자가 구태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는 한국사 전공자 가운데 수공업사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마침 16세기 경북 지역의 장인을 가지고 학위를 하였으며, 조선전기 제지수공업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서 감히 서평을 써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학계에서 수공업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歷史學報』 제199집(2008. 9)에 수록된 ‘韓國 歷史學界의 回顧와 展望(2006~2007)’에서 신호철은 최근 수년 동안 경제사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사 연구에서의 균형 발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¹⁾. 아울러 조선시대 연구사 동향(2006~2007)을 소개하는

글에서도 수공업에 대한 논문은 거의 언급이 없다.²⁾ 물론 수공업사 연구는 1960~1970년대에 ‘자본주의 맹아론’과 관련하여 발전론적 시각에서 조선후기 사회를 파악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다른 분야에서는 양적인 면에서 연구가 폭증하고 있으나 수공업 분야 연구는 답보 상태에 있으며 근년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공업사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관련 자료가 다른 분야보다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주로 이용된 자료는 관찬사료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이다. 이들 자료는 관찬사료인 만큼 국가의 입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나 논의 내용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인의 활동 상황이나 제작된 물품의 양, 유통체계 등 당시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적어 조선시대 수공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이하 제지수공업 연구로 약칭)도 이러한 자료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기류나 절목(節目)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³⁾.

사실 한국사와는 다른 분야인 미술사학이나 공예학

1 申虎澈 2008, 「한국사학계의 당면과제와 향후전망」, 『歷史學報』 199, 역사학회.

2 수공업사 분야에 「匠人」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면 회고와 전망에서 3편의 논문이 소개되고 있다. 박종민, 「조선시대 국장도감 소속 공장의 활동 연구」 『문화재』 40, 장경희, 「조선후기 山陵都監의 匠人 연구」 『역사민속학』 25, 김경란, 「조선후기 良役政策의 전개와 匠人파악의 변화」 『한국사학보』 29가 그것으로 앞의 두 연구는 의궤에 나타난 장인에 관한 것이며 뒤의 연구는 국가의 장인 운영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3 최근 수공업과 관련하여 자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기류, 문집 등 개인이 남긴 자료에 대하여 좀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가령 19세기의 자료이지만 『渚上日月』에는 장사에서 구입한 물품이 나오는데 그 물품 가운데 종이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관찬사료에서 얻지 못하는 풍부한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서도 수공업사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나, 그것은 주로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작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최근 의뢰에 나타난 다양한 장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수공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수공업의 한 분야인 조선시대 '제지(製紙) 분야'만을 가지고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수공업을 분야별로 볼 때 그나마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도자기'와 '제지' 분야인데, 그것은 조선시대 때 지배층 사이에서 두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므로 관련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조선시대 제지사'를 대상으로 이만큼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이 책이 처음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 평자 나름대로 『제지수공업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내용에서 평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내용 몇 가지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먼저 책의 구성부터 보면 저자도 밝혔듯이 이 책은 그의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논문을 추가하여 모두 4개의 장(章)으로 구성하였다. 그 가운데 2개의 장은 관영 제지수공업을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종이를 만드는 중앙 부서인 조지서의 설치와 변화 과정, 그리고 지방지소(地方紙所)의 변화와 방납의 폐단이 그 중심 내용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1415년(태종 15년)에 설립된 조지서를 중심으로 15세기 초반에는 안정적인 종이 수급이 이루어졌으나 국가 재정의 악화로 조지서가 쇠퇴하였으며, 아울러 방납(防納)의 폐단으로 일반 민호(民戶)가 동원되는 지방지소(地方紙所)가 쇠퇴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계속되어 18세기에는 조지서가 관영 수공업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이런 점은 지방지소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더욱 그렇게 되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평자는 이런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며 여기에서 특히 조선 전기 지방지소의 모습을 밝혀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사

적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지수공업사의 관점에서 조선시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저자 나름대로의 시기 구분을 명확히 했다면 하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저자는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관영 수공업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전기가 어느 시기까지이며 후기가 어디까지인지 저자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많은 조선시대사 연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으므로 저자가 이런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저자는 제지수공업 연구에서 대동법 실시 이후에 제지수공업이 크게 변화했음을 내내 강조하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제지수공업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조선 전기와 후기의 기점을 대동법이 시행된 시기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사실 시기 구분은 각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제지수공업사의 관점에서 조선 전기와 후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관점에 따라 시기 구분이 달라지고 그것이 활발하게 논의된다면 한국사 연구가 보다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하는 것이 평자의 생각이다.

제3장에서는 대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찰제지업과 민간제지업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였는데, 이 장은 저자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저자는 책의 서문(p.20)에서 '공납제(貢納制)의 구조와 결부시켜 제지수공업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큰 틀로 삼고 관영수공업의 해체와 민간수공업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동법의 실시로 궁극적으로 민간수공업의 변화 즉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여기에서 먼저 주목되어야 할 점은 저자의 관점이다. 사실 수공업이 새로운 양상을 갖게 된 것은 대동법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이미 선학에 의하여 간단하게나마 언급되었다⁴⁾. 저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지수공업의 변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풀어놓았으며,

4 李基白, 1990, 『韓國史新論』 신수판, 일조각, p.303. 宋贊植은 『朝鮮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1973)에서 조선 후기 제지수공업에 관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남겼는데, 그의 연구에서 대동법과 수공업간의 관계를 상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기백은 이 연구를 참조하여 한국사 개론서에서 대동법이 수공업에 미친 영향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장에서 사소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자는 이 장에서 민간제지수공업이 조선 후기에 성장하였음을 다각도로 논술하고 있다. 사찰제지수공업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고 한다(p.121).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저자에 따르면 종이를 만드는 지승(紙僧)은 자신들이 생산한 종이를 시장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었으며 거래가 활성화된 시기도 1700년대 이후로 추측된다고 지적하고 있다(p.167). 그러나 한편 이 시기에 사찰에 부과되는 지역(紙役)이 심하여 승도들이 도산하고 있음을, 저자는 여러 사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p.144~146). 이러한 이중적인 현상을 저자는 ‘도산하는 승도(僧徒)가 발생한 반면 이(利)에 편승하는 승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p.146).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찰제지업은 조선 후기에 과연 성장을 한 것인가 혹은 쇠퇴를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역(紙役)이 심하여 도망가는 승도들과 시장에서 몰래 종이를 파는 승도⁵⁾들이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결국 이러한 상황은 사찰제지업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쇠퇴해져 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민간제지업은 저자의 의견대로 조선 후기에 성장하였던 것일까.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더욱이 이와 무관하지 않게 최근에는 일부 경제사학자들이 여러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17~18세기와 달리 19세기의 조선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민간제지업이 성장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저자가 생각하는 ‘성장’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는 조선 후기에 오면 종이 수요의 확산에 힘입어 향시(鄕市)에서 종이가 거래되고 닥나무밭(楮田)이 확대되는 등 유통과 생산에서 새로운 움직임

이 민간제지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평자의 생각으로는 ‘민간제지업의 성장’의 지표로는 민간 제지업자의 부(富)의 축적, 시장에서 자유로운 판매, 상인들과의 거래 상황 등이 되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에 대한 증거를 찾기는 그다지 쉽지 않다. 저자도 그의 저자에서 민간제지업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기존 연구에서 이 시기에 책 간행의 증가, 지방장사의 발달 등의 연구 성과는 성장하였기 때문에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수공업 분야의 측면에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더 광범히 한 자료 수집의 바탕 위에서만이 민간제지업의 성장 여부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4장의 제지기술과 지공예에 대하여 쓴 것인데, 이것은 저자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현지조사와 유물정리를 직접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제지과정과 각종 지공예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지기술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결합하였고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단지 제지수공업을 문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입체적인 접근이 돋보인다.

그 밖에 저자의 논지 전개에서 사소한 한 두가지를 더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저자는 『楮竹田事實』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삼남지방의 저전 현황을 표로 정리하였다. 이처럼 표로 정리한 까닭은 닥나무밭이 18세기말을 기준으로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그 수가 증가했음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닥나무를 구종(舊種)과 신종(新種)으로 나누었는데, 저자는 ‘구종’을 기록 시점에서 볼 때 이전부터 있어 왔던 저전(楮田)으로 설명(p.113)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으로 본 1794년에 조사된 책자를 바탕으로 만든 <표 7>에서 언급되는 ‘舊種 8庫乙卯新加’ 등에 대한 자료는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을묘년’은 1795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종’과 ‘신종’의 기준은 기록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기록

5 저자는 p.146에서 『備邊司謄錄』 제170책 정조 11년 정월 1일조의 사료를 근거로 사찰의 승도들이 승상(松商)과 같은 상인세력의 생산주문에 응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평자의 생각으로는 이 자료에서 중요한 내용은 ‘又因營邑之侵漁 僧徒柵市之潛賣紙貨 有此’으로 생각된다. 즉 ‘감영의 과도한 수탈로 승려들이 책시에서 종이를 몰래 판다’는 상황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승려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종이를 정상적인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승들은 비록 종이를 판매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였음을 이 자료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6 이영훈 편, 2004, 『수령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각 분야별로 경제지표를 통하여 19세기에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 후기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그 경향성을 일률적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에 나타난 표현 그대로 '심어 놓은 닥나무의 종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조선 후기 어느 시점에 새로운 품종의 닥나무가 심어졌는데, 이들 품종을 기준으로 하여 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평자 나름대로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해 보았다. 그러나 어떠한 지적은 평자의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평자는 조선시대 수공업사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해 오고 있었다. 연구 성과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리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저자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분야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하고 싶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많지 않은 자료는 가리고 한 분야에 수공업사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기란 말 그대로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자의 수공업사 분야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혹시 이 논평으로 인하여 좀 더 많은 수공업사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